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14	08. 21	08. 28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8월 축복인사 -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세요.(성도 간에)
구주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로!(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 헌금 통계 - 7월 24일(주일) 통계입니다.
3. 7월 생일 - 이종길 성도, 조영재 형제, 윤석진 형제, 강희수 자매
4. 성도의 교제 - 예배 후 7월 생일 축하 겸 식탁교제를 나누겠습니다.
5. 한민 말씀방 - 매일 말씀 묵상으로 경건생활에 힘쓰세요.

교우동정

생일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출국	이현 형제(미국 교환학생, 9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당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69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에 7 : 1 - 10(구p756).....정용현 안수집사
 (Esther 7:1-10)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권사

† 기도제목

1.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안식은 선택이 아닌 의무

하나님은 창조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때의 안식은 창조와 노동 후의 안식입니다. 쉽 으로서 안식은 특별히 오늘날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안식은 '시간은 금이다'고 말하는 현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을 나만의 영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데다 남편 새뮤얼 웨슬리가 걸핏하면 빚을 져 집안 살림을 어렵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래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신 없이 바쁘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 드릴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잔나는 분주한 삶의 와중에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 드리는 훈련이야말로 영적 안정과 인격적 만족에 필수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수잔나의 영적 생존 비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쉽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공간을 내어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있었습니다. 쉽을 통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이며 그 자체로 기쁨이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는 신동행기 /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 안식일의 휴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 Dan Allender(미 마스힐 신학대학원 총장) -